

>>> 4주 후, 나만의 국어 문법 노트가 완성되는

문법백제 PLUS

HOW TO USE 문법백제 PLUS

국어 언어(문법) 문제 이렇게 풀고 분석하자!

HOL500
START

고난도 언어(문법) 문제 대비를 위한
HOW TO USE 문법백제 PLUS

언어(문법)를 제대로 공부하는 3 STEP 학습법

새롭게 바뀐 수능 국어에 따라 국어 문법은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의 언어 과목에서 출제된다. 수험생 문법 개념과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많지만, 언어(문법)과 국어(어휘)를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 즉 시험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언어(문법)를 선택하여 철저하게 준비한 학생은 국어 과목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어(문법)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과목의 특성상 문법 개념과 이론에 대한 학습이 전혀 없이 먼저 문제 풀이부터 접근하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어 문법 개념과 문법의 기본 지식을 쌓아야 한다. 이때 체계적으로 구성된 학습서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어 문법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익히고 각 문법 개념이나 이론에 전체 체계 속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 문법백제 PLUS를 시작하기 전에 국어 문법 필수 개념서인 '연어(문법)'로 먼저 국어 문법의 기초를 다져보시오.

이제 국어 문법을 전체적으로 한 번은 공부했다면, '문법백제 PLUS'를 시작해 봅시다. '문법백제 PLUS'는 평가원 기출 문제를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작한 고난도 국어 문법 모의고사입니다. 문제만 풀고 버리는 일회성 모의고사가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를 통해 문법 지식을 다시 정리하며 빈틈을 채워주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래에 안내된 STEP 1~STEP 3의 단계를 거쳐 언어(문법)를 완벽하게 공부해 보세요.

STEP 1 DAY별 문제 풀이 & 분석 & 나만의 문법 개념 PLUS 정리하기

1. 오늘 복습할 DAY의 문제 페이지를 펼치고, 중요한 문법 지식을 확인하고, 신기한 문법을 찾아 보세요.

언어(문법) 문제의 올바른 분석 방법을 알아보자.

기출 문제를 풀었으면, 이제 시간 제한 없이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 봅시다. 이때 분석한 것(해설)과 각 문제마다 지문이나 (보기), 선택해 활용된 문법 개념과 이론을 정리하고,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찾아 꼼꼼하게 분석하는 법을 터득해 보세요!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단어에 담긴 **연중의 인식과 더불어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 구성 방식도 이해할 수 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에는 '철어기(鐵語記)'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alphabet'에 해당하는 단어로 '말을 멀리 보내는 기계'라는 뜻이다. 오늘날의 '전화기(電話機)'가 '전기를 통해 말을 보내는 기계'의 뜻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철어기'는 말을 '멀리 보낸다'는 점에, '전화기'는 말을 '전기로 보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단어이다. 이처럼 단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달라지기도 한다. (㉢-㉣) 또한 개화기 시대에 등장하는 '소젓배우(소젓배우)'처럼 새 용어를 유입된 단어를 일상의 단어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 '소젓배우'는 '치즈(cheese)'에 대응하는 단어인데, 간장과 된장의 재료인 '배우'라는 일상의 단어를 통해 단어를 인식했음을 보여 준다.

2021학년도 수능 11번

01. ㉢과 ㉤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세레미티, 두담이, 순은그림자, 한동하다
㉠, ㉡, ㉢, ㉣, ㉤

- ㉠ 세레미티: 훈민정음 연구서 4권
- ㉡ 세레(세레미티) + 세(세미티)
- 두담(두담이) + 영(영이)
- 한동(한동이) + 동(동이)
- ㉢ (언어)의 구성 요소들이 해당 문헌에 사용되어 관련
- ㉣ 세레미티(세레) + 두담(두담이)
- 순은(순은) + 배우(배우) + 우(우)
- 한동(한동이) + 동(동이)

- ① 세레미티, 순은그림자, 한동하다
- ② 두담이, 순은그림자, 한동하다
- ③ 세레미티, 순은그림자
- ④ 세레미티, 한동하다
- ⑤ 세레미티, 한동하다, 순은그림자

- 새롭게 바뀐 수능 국어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의 언어(문법)를 대비하기 위한 최적의 고난도 문법 모의고사입니다. 발문과 지문, 보기에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여 출제자가 요구하는 문법 지식과 문제 풀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수능 국어 언어(문법)를 비롯한 각종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올바른 문법 학습법을 제시합니다.

PART 1 & PART 2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5회 +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5회 = 총 20회

HOL500
DAY 01

PART 1. 11월의 문법 개념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1회

공부한 날짜 년 월 일 08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음절은 단독으로 발음되는 최소의 소리 단위로, 현대 국어에서 음절의 구성 방식은 '음성', '조성' + '음성', '음성' + '음성', '조성' + '음성' + '음성'의 네 가지가 있다. 하나의 음절은 음절에서 단모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중 1개 또는 단모음에 받음음이 결합한 이중 모음 1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또한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구성과 달리 조성과 음절은 자음이 각각 0개 혹은 1개 나타날 수 있다. 모음은 단독으로 발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음은 단독으로 발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음으로 하나의 음절을 이루거나, 모음이 자음이 붙어 음절을 이루게 된다.

다음으로 국어의 음절 구성 방식과 관련된 몇 가지 제약을 살펴보자. 첫째, (가) "은은"은 조성 자리엔 음 소 없고 음절엔 음 소 없다. (나) "은은"은 조성 자리엔 'ㅇ'이 나타나지만 이는 형식적으로 쓰인 것뿐, 자음 'ㅇ'이라고 할 수 없다. 가령 "어어"에서 조성 자리엔 "어어"를 발음하지 않고, 모음 'ㅣ'와 'ㅣ'만 각각 단독으로 발음된다. 둘째, 음절의 조성 자리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외의 구성요소 음 소 없다. 즉 (가)에서 비교하여 음 소

11.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레발레'에서 '발'과 '레'는 각각 하나의 음절에 해당한다.
- ② '영영'은 이중 모음에 자음 1개가 붙은 조성 + 조성의 음절 구성 방식에 해당한다.
- ③ '가계(가계)'에서 두 음절은 모두 조성에서 자음 1개와 조성에서 단모음 1개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전나 + 어'에서 첫 음절이 줄어 '전나'만 남게 된 것은 모음이 발리던 것과 관련된다.
- ⑤ '사이에서 한 음절이 줄어 '세'가 된 것은 두 단모음이 하나의 이중 모음으로 축약된 것과 관련된다.

12. ㉠과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보기)와 관련된 지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3점]

(보기)
(가) 최소 대립쌍이란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한다. 그런데 자음 'ㅇ'과는 달리 'ㅇ'은 음절의 초성엔 올 수 없고, 음절의 종성엔 올 수 없다.
(나) 음절의 초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외의 구성요소 음 소 없다.

HOL500
DAY 06

PART 2. 11월의 문법 문제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회

공부한 날짜 년 월 일 08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된다. 이때 비음음과 파열음은 다시 액시소리, 원소리, 기생소리로 나뉜다. 아래는 국어의 자음 입부음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한 표이다.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원음음	치음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비음음	ㅁ	ㄴ	ㅇ	ㅇ
파열음	ㄱ	ㅋ	ㆁ	ㅇ

한편 어떤 음운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동일한 음운으로 바뀌거나, 조음 위치 또는 조음 방법이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통틀어 '변화'라고 한다. 조음 방법과 관련된 동화 현상 중에는 '비음 동화'가 있다. 가령, '국인' → [구민]에서 파열음인 'ㄴ'은 비음인 'ㅇ'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뀌었다. 또한 비음 동화는 '-[음소]과 같이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을 겪은 후에 일어나기도 한다.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는 동화 현상 중에는 구개음화가 있다. 구개음화는 알 형태소의 받침 'ㄷ, ㅌ, ㅍ'이 모음 'ㅣ'나 받음음 'ㅇ'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의 원나 'ㄷ, ㅌ, ㅍ'으로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한다. 'ㄷ, ㅌ, ㅍ'은 조음 위치

11.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갑 + 는 → [갑는]
㉡ 단 + 이 → [단니]
㉢ 속 + 는 → [속는]
㉣ 갑 + 만 → [갑만]
㉤ 곧 + 이 → [꾸지]

- ① ㉠: '갑 + 는' → [갑는]에서처럼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조음 방법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 '단 + 이' → [단니]는 [단]에서처럼 알 음절의 종성이 인접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 '속 + 는' → [속는]에서처럼 비음의 영향으로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 '갑 + 만' → [갑만]에서처럼 자음과 종 하나가 달라지고 낮은 자음의 조음 방법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 '곧 + 이' → [꾸지]에서처럼 자음이 모음의 조음 위치에서 통화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출수편집부의 문법 담당 연구원들이 직접 제작한 수능 국어 문법 모의고사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수능 국어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는 주로 기본 개념과 이론을 활용한 문제로,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는 조금 더 심화된 개념과 이론을 활용하여 만든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 ‘문법백제 PLUS’는 고난도 문법 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입니다.

- ‘HOW TO USE 문법백제 PLUS’에서는 국어 문법을 공부하는 올바른 학습법과 ‘나만의 문법 개념 PLUS’의 사용법을 보여 줍니다.

-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와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로 실력을 점검하고 ‘출제의 핵! 개념어를 담자!’와 ‘나만의 문법 개념 PLUS’를 통해 문제 풀이만 하는 모의고사가 아닌 차곡차곡 개념을 쌓아 나가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진단하여 틀린 문제와 관련된 단원으로 다시 돌아가 개념과 이론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친절한 해설과 '나만의 문법 개념 PLUS' 활용법

- 문제의 지문, 보기, 발문, 선지 등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법 개념어들은 각 문항의 해설 아래 ‘출제의 핵! 개념어를 담자!’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는 더 알아두면 좋은 문법 지식과 문제 풀이 TIP입니다.

- 각 DAY별 모의고사 뒤에 있는 ‘나만의 문법 개념 PLUS’를 만들어 봅니다. 각 문항에서 사용된 문법 개념이나 이론을 이론서나 기출 문제의 지문, 선지 등에서 발췌한 표현을 활용하여 정리해 보세요.

PART 3 문법 핵심 정리 & 나만의 오답 노트

- DAY1~20의 모의고사 문제 풀이와 분석이 끝나면, 5일간의 복습으로 문법 개념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 국어 문법은 체계가 중요합니다. 수능 국어 문법의 필수 개념과 이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능 국어 문법을 세부 단원별로 체계화하여 정리했습니다. 또한 단원별로 해당하는 문제를 표시해 두어, 틀렸거나 확신 없이 푼 문제는 나만의 오답 노트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LUS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 = 초고난도 20문제

-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제작된 20개의 함정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즉, 문제 풀이에서 헛갈리는 초고난도 문제를 의미합니다.
- PART 3까지 마무리했다면 자신의 실력을 최종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의 초고난도 20문제에 도전하여, 약점을 극복해 보세요.

CONTENTS

5일간

문법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15일간

헛갈리는
합정이 숨어 있는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HOW TO USE 문법백제 PLUS 국어 언어(문법) 문제 이렇게 풀고 분석하자!

- 언어(문법)를 제대로 공부하는 3 STEP 학습법 P.08
- 언어(문법)기출 문제를 풀어보자. P.09
- 언어(문법) 문제의 올바른 분석 방법을 알아보자. P.12
- 나만의 문법 개념 PLUS P.17

PART 1. 5일간의 문법 기본기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 DAY 01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1회 P.20
- DAY 02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2회 P.26
- DAY 03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3회 P.32
- DAY 04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4회 P.38
- DAY 05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5회 P.44



5일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문법 핵심 정리 &
나만의 오답 노트



PLUS

초고난도
20문제 도전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

PART 2. 15일간의 합정 문제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 DAY 06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회	P.52
• DAY 07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2회	P.58
• DAY 08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3회	P.64
• DAY 09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4회	P.70
• DAY 10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5회	P.76
• DAY 11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6회	P.82
• DAY 12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7회	P.90
• DAY 13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8회	P.96
• DAY 14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9회	P.104
• DAY 15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0회	P.112
• DAY 16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1회	P.120
• DAY 17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2회	P.128
• DAY 18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3회	P.136
• DAY 19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4회	P.144
• DAY 20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5회	P.150

PART 3. 5일간의 문법 핵심 정리 & 나만의 오답 노트

• DAY 21	1. 음운과 음운의 변동	P.160
• DAY 22	2. 형태소와 단어	P.166
• DAY 23	3. 문장의 이해	P.174
• DAY 24	4. 문법 요소	P.180
• DAY 25	5. 의미 & 국어의 역사	P.184

PLUS 초고난도 20문제

• DAY 26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	P.194
----------	-------------	-------

진단하기

P.204에 맞힌 개수로 알아보는 공부 방법 진단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26일 완성 학습 PLAN

✓ 체크하세요

Day	문제 책 페이지	HOW TO USE 문법백제 PLUS & PART 1 문법 기본기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준비	P.08	HOW TO USE 문법백제 PLUS			
DAY 01	P.20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1회			
DAY 02	P.26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2회			
DAY 03	P.32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3회			
DAY 04	P.38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4회			
DAY 05	P.44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5회			

Day	문제 책 페이지	PART 2 15일간의 함정 문제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DAY 06	P.52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회			
DAY 07	P.58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2회			
DAY 08	P.64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3회			
DAY 09	P.70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4회			
DAY 10	P.76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5회			
DAY 11	P.82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6회			
DAY 12	P.90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7회			
DAY 13	P.96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8회			
DAY 14	P.104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9회			
DAY 15	P.112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0회			
DAY 16	P.120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1회			
DAY 17	P.128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2회			
DAY 18	P.136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3회			
DAY 19	P.144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4회			
DAY 20	P.150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5회			

Day	문제 책 페이지	PART 3 문법 핵심 정리 & 나만의 오답 노트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DAY 21	P.160	1. 음운과 음운의 변동			
DAY 22	P.166	2. 형태소와 단어			
DAY 23	P.174	3. 문장의 이해			
DAY 24	P.180	4. 문법 요소			
DAY 25	P.184	5. 의미 & 국어의 역사			

Day	문제 책 페이지	PLUS 초고난도 20문제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DAY 26	P.194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			
복습					

- 26일간의 학습이 완료되면 다시 복습을 시작하되,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닌 '나만의 문법 개념 PLUS'와 '나만의 오답 노트'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문제를 분석해 보세요.
- PLUS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는 충분한 학습 후에 도전하여 자신의 진짜 약점을 찾아 보는 점검용 모의고사입니다. 반드시 25일간의 학습을 충분히 한 후 도전하고 틀린 문제는 다시 PART 3으로 돌아가 해당 단원을 복습해야 합니다.
- 2회독, 3회독을 할 때에는 1회독 때 놓쳤던 중요한 학습 요소를 찾아 정리해 보세요. 복습을 할 때에는 DAY 2~3일 분량을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HOW TO USE 문법백제 PLUS

국어 언어(문법) 문제
이렇게 풀고
분석하자!

언어(문법)를 제대로 공부하는 3 STEP 학습법

새롭게 바뀐 수능 국어에 따라 국어 문법은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의 언어 과목에서 출제됩니다. 수많은 문법 개념과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많지만, 언어(문법) 과목이야말로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 즉 시험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언어(문법)을 선택하여 철저하게 준비만 잘 한다면 국어 과목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문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목의 특성상 문법 개념과 이론에 대한 학습이 전혀 없이 먼저 문제 풀이부터 접근하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어 문법 개념서로 문법의 기본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이때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념서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어 문법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익히고 각 문법 개념이나 이론이 전체 체계 속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문법백제 PLUS'를 시작하기 전에 국어 문법 필수 개념서인 '백문일답'으로 먼저 국어 문법의 기초를 다져보세요.

자, 이제 국어 문법을 전체적으로 한 번은 공부했다면, '문법백제 PLUS'를 시작해 봅시다. '문법백제 PLUS'는 평가원 기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이 헛갈릴 수 있는 함정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작한 고난도 국어 문법 모의 고사입니다. 문제만 풀고 버리는 일회성 모의고사가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를 통해 문법 지식을 다시 정리하며 빈틈을 채워가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래에 안내된 STEP 1~STEP 3의 단계를 거쳐 언어(문법)을 완벽하게 공부해 보세요.

STEP 1 DAY별 문제 풀이 & 분석 & 나만의 문법 개념 PLUS 정리하기

1. 오늘 분석할 DAY의 문제 페이지를 펼친 후, 주어진 목표 시간을 확인하고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 보세요.
2. 문제를 풀었다면, 정답과 해설을 보기 전에 문제에서 정확하게 몰랐던 개념들에 체크를 한 후, 다음 페이지의 해설을 참고하여 정답과 오답을 꼼꼼히 분석해 보세요. 이때 문제에서 다른 개념어는 '출제의 핵! 개념어를 담자!'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3. 문제 풀이와 분석을 마쳤다면, 오늘 학습의 마지막 코스인 '나만의 문법 개념 PLUS' 페이지를 펼치고, 각 문항에 활용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법 개념서를 활용하여 문제에 나온 개념과 관련된 페이지를 적고, 문제와 개념서를 참고하여 문법 개념과 이론을 정리해 보세요.

STEP 2 문법 핵심 정리 & 나만의 오답 노트 만들기

1. STEP 1의 방식대로 20일간의 문법백제 학습을 마쳤다면, 이제 단원별로 제시된 문법 핵심 정리를 보며 다시 전체적인 국어 문법의 체계를 익힙니다.
2. 각 단원에 해당하는 문법백제 문제를 다시 확인하면서 반드시 다시 보아야 할 문제를 체크하고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문제를 그대로 다시 적으며 정리해도 되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과 이론, 헛갈렸던 부분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해도 됩니다.

STEP 3 초고난도 20문제로 점검하기

1. STEP 1과 STEP 2를 통해 나만의 오답 노트까지 만들었다면, 초고난도 20문제로 자신의 약점을 완벽히 극복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약점까지 빈틈없이 학습하는 것이 언어(문법)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2.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의 해설에는 각 문제마다 'CHECK'로 다시 학습해야 하는 단원과 페이지를 제시하고 있으니, 반복 학습 하면서 언어(문법)를 정복해 보세요.

먼저, 주어진 목표 시간에 맞추어 기출 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세요. 기출 문제를 통해 언어(문법) 문제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고, 개념서에서 학습한 문법 개념과 이론이 문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파악해 보세요.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수능 11번

우리는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단어에 담긴 언중의 인식과 더불어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 구성 방식도 이해할 수 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에는 ‘원어기(遠語機)’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telephone’에 해당하는 단어로 ‘말을 멀리 보내는 기계’라는 뜻이다. 오늘날의 ‘전화기(電話機)’가 ‘전기를 통해 말을 보내는 기계’의 뜻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원어기’는 말을 ‘멀리’ 보낸다는 점에, ‘전화기’는 말을 ‘전기로’ 보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단어이다. 이처럼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개화기 사전에 등장하는 ‘소젓메주(소젓메주)’처럼 새롭게 유입된 대상을 일상의 단어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소젓메주’는 ‘치즈(cheese)’에 대응하는 단어인데, 간장과 된장의 재료인 ‘메주’라는 일상의 단어를 통해 대상을 인식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가례언해』(1632)에 따르면 ‘총각(總角)’은 ‘머리를 땡아 갈라서 틀어 땡’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그러한 의미는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를 뜻한다. 특정한 행위를 나타내던 단어가 이와 관련된 사람을 지시하는 말로 그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남자도 머리를 땡아 묶었던 과거의 관습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부대찌개’ 역시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로 찌개를 끓였던 것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다.

우리는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가 구성되는 방식도 파악할 수 있다. 『한불사전』(1880)에는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길보기’와 ‘산돌이’가 등장한다.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풀이된 ‘두길보기’의 ‘두길’은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장소를 일 년에 한 번만 지나가는 큰 호랑이”로 풀이된 ‘산돌이’는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산을 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예전에도 오늘날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단어를 만들어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던 셈이다.

01. ㉠과 ㉡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새해맞이,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① 새해맞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②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③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 ④ 새해맞이, 한몫하다
- ⑤ 새해맞이

2021학년도 수능 12번

02.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립스틱’을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던 염료인 ‘연지’라는 단어를 사용해 ‘입술연지’라고도 했다.
- ‘변사’는 무성 영화를 상영할 때 장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설명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 ‘수세미’는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풀을 뜻하는데, 그 열매속 섬유로 그릇을 닦았다. 오늘날 공장에서 만든 설거지 도구도 ‘수세미’라고 한다.
- ‘허대’의 순화어로 ‘가족으로 만든 띠’라는 뜻의 ‘가족 띠’와 ‘허리에 매는 띠’라는 뜻의 ‘허리띠’가 제시되어 있다.
- ‘양반’은 조선시대 사대부를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점잖은 사람’의 뜻으로 주로 쓰인다.

- ① ‘입술연지’는 ‘소젓메주’처럼 일상의 단어로 새로운 대상을 인식한 예로 볼 수 있겠군.
- ② ‘변사’는 무성 영화와 관련해 쓰인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상이 반영된 예에 해당하겠군.
- ③ ‘수세미’는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총각’과 유사하겠군.
- ④ ‘가족띠’는 ‘재료’에, ‘허리띠’는 ‘착용하는 위치’에 초점을 둔 단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⑤ ‘양반’은 신분의 구분이 있었던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겠군.

언어(문법) 문제의 올바른 분석 방법을 알아보자.

기출 문제를 풀었으면, 이제 시간 제한 없이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 봅시다. 아래 분석한 것처럼, 각 문제마다 지문이나 <보기>, 선지에 활용된 문법 개념과 이론을 정리하고,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찾아 꼼꼼하게 분석하는 법을 터득해 보세요!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수능 11번

우리는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단어에 담긴 언중의 인식과 더불어 시대상을 짐작(2-㉔, ㉕)할 수 있다. 그리고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 구성 방식도 이해할 수 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에는 ‘원어기(遠語機)’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telephone’에 해당하는 단어로 ‘말을 멀리 보내는 기계’라는 뜻이다. 오늘날의 ‘전화기(電話機)’가 ‘전기를 통해 말을 보내는 기계’의 뜻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원어기’는 말을 ‘멀리 보낸다’는 점에, ‘전화기’는 말을 ‘전기로 보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단어이다. 이처럼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달라지기도 한다.(2-㉔) 또한 개화기 사전에 등장하는 ‘소젓메주(소젓메주)’처럼 새롭게 유입된 대상을 일상의 단어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2-㉑) ‘소젓메주’는 ‘치즈(cheese)’에 대응하는 단어인데, 간장과 된장의 재료인 ‘메주’라는 일상의 단어를 통해 대상을 인식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가례언해』(1632)에 따르면 ‘총각(總角)’은 ‘머리를 땅아 갈라서 틀어 땀’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그러한 의미는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를 뜻한다.(2-㉓) 특정한 행위를 나타내던 단어가 이와 관련된 사람을 지시하는 말로 그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남자도 머리를 땅아 묶었던 과거의 관습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부대찌개’ 역시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로 찌개를 끓였던 것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다.(2-㉔, ㉕)

우리는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가 구성되는 방식도 파악할 수 있다. 『한불자전』(1880)에는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길보기’와 ‘산돌이’가 등장한다.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풀이된 ‘두길보기’의 ‘두길’은 ㉑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1-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장소를 일 년에 한 번만 지나가는 큰 호랑이”로 풀이된 ‘산돌이’는 ㉒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1-㉔)로 이루어져 ‘산을 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예전에도 오늘날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단어를 만들어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던 셈이다.

01. ㉑과 ㉒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새해맞이, ㉑, ㉒
두말없이, ㉑
숨은그림찾기, ㉒
한몫하다, ㉑, ㉒

㉑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
 : 새해(새(관형사) + 해(명사))
 두말(두(관형사) + 말(명사))
 한몫(한(관형사) + 몫(명사))

㉒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
 : 새해맞이(새해(목적어) 맞이하다(서술어))
 숨은그림찾기(숨은그림(목적어) 찾다(서술어))
 한몫하다(한몫(목적어) 하다(서술어))

- ① 새해맞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②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③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 ④ 새해맞이, 한몫하다
- ⑤ 새해맞이 → 한몫하다도 ㉑, ㉒을 충족함



품사와 문장 성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 (1) 품사는 단어들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문장 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이다.
- (2) 관형사와 관형어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관형어>

① 관형사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
 예 그는 새 옷을 입었다.

② 체언/ 명사절이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
 예 나는 시골 풍경을 좋아한다. / 봄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하자.

③ 체언 / 명사절에 관형적 조사 ‘의’가 결합한 경우
 예 시골의 풍경이 아름답다. / 빠른게 걷기의 효율적인 방법을 알았다.

④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경우
 예 키가 큰 사나이

⑤ 서술격 조사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경우
 예 학생인 나는 공부를 해야 한다.

정답풀이 ④

윗글에서는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의 예시로 '두길보기'의 '두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어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두길'과 같이 '관형사 + 명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을 충족하는 단어에 해당한다. <보기>에서는 '새해맞이'의 '새해'와 '두말없이'의 '두말', '한뫼하다'의 '한뫼'이 '관형사 + 명사'의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을 충족한다. 한편 윗글에서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의 예시로는 '산돌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산을 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보기>의 '새해맞이'는 '새해를(목적어) 맞이하다(서술어)', '숨은그림찾기'는 '[숨은(관형어) 그림]을(목적어) 찾다(서술어)', '한뫼하다'는 '한뫼을(목적어) 하다(서술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을 충족하는 단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 ㉡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는 '새해맞이'와 '한뫼하다'이다.

✓ 발문에서 ㉠, ㉡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고르라고 했으니, 조건에 충족한 단어가 선지어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겠지?

오답풀이

두말없이

'두말없이'에서 '두말'은 '관형사 + 명사'의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을 충족하지만, '두말없이'는 '두말이(주어) 없다(서술어)'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라고 볼 수 없어 ㉡을 충족하지 못한다.

숨은그림찾기

'숨은그림찾기'는 '[숨은(관형어) 그림]을(목적어) 찾다(서술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을 충족하는 단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숨은그림찾기'의 '숨은그림'에서 후행하는 명사 '그림'을 수식하는 '숨은'은 관형사가 아니라 동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을 충족하지 못한다.

2021학년도 수능 12번

02.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립스틱'을 여성들이 입술에 바른 염료인 '연지'라는 단어를 사용해 '입술연지'라고도 했다.(2-①)
- '변사'는 무성 영화를 상영할 때 장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설명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2-②)
- '수세미'는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풀을 뜻하는데, 그 열매속 섬유로 그것을 닦았다. 오늘날 공장에서 만든 설거지 도구도 '수세미'라고 한다.(2-③)
- '혁대'의 순화어로 '가족으로 만든 띠'라는 뜻의 '가족띠'와 '허리에 매는 띠'라는 뜻의 '허리띠'가 제시되어 있다.(2-④)
- '양반'은 조선시대 사대부를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점잖은 사람'의 뜻으로 주로 쓰인다.(2-⑤)

- ① '입술연지'는 '소젓메주'처럼 일상의 단어로 새로운 대상을 인식한 예로 볼 수 있겠군. → '연지'라는 일상의 단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대상인 '립스틱'을 '입술연지'로 표현함
- ② '변사'는 무성 영화와 관련해 쓰인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상이 반영된 예에 해당하겠군.
- ③ '수세미'는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총각'과 유사하겠군. → '총각'은 기존의 의미는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만 남은 경우
- ④ '가족띠'는 '재료'에, '허리띠'는 '착용하는 위치'에 초점을 둔 단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짐
- ⑤ '양반'은 신분의 구분이 있었던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겠군.

정답풀이 ③

<보기>에 따르면 '수세미'는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풀'이라는 기존의 의미에 '공장에서 만든 설거지 도구'라는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 것이 맞다. 하지만 윗글의 3문단에서 '총각'은 '머리를 깎아 갈라서 틀어 땀'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그러한 의미는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를 뜻한다.'라고 했으므로,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미는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만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 ① 윗글의 2문단에서 '치즈'에 대응되는 단어인 '소젓메주는' '새롭게 유입된 대상을 일상의 단어로 표현한' 것으로, "메주라는 일상의 단어를 통해 대상을 인식했음을 보여 준다."라고 했다. <보기>에 따르면 '입술연지'는 '립스틱'에 대응되는 단어로, '연지'라는 일상의 단어로 새로운 대상인 '립스틱'을 인식한 예라고 볼 수 있다.
- ② 윗글의 1문단에서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단어에 담긴 언중의 인식과 더불어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 3문단에서 그 예로 '부대찌개'를 들면서 이는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로 찌개를 끓였던 것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다.'라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변사'는 '무성 영화를 상영할 때 장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설명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는 점에서 무성 영화가 상영되었던 시대상이 반영된 예라고 할 수 있다.
- ④ 윗글의 2문단에서 영어의 'telephone'에 해당하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진다고 하면서, 말을 '멀리 보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원어기로, 말을 '전기로' 보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전화기로' 표현한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를 고려하면 '가족띠'는 '재료'에, '허리띠'는 '착용하는 위치'에 초점을 둔 단어로,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윗글의 1문단에서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단어에 담긴 언중의 인식과 더불어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 3문단에서 그 예로 '총각'을 들면서 이는 '머리를 깎아 갈라서 틀어 땀'을 이르는 말이었는데, 이를 통해 '남자도 머리를 깎아 묶었던 과거의 관습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다. <보기>에 따르면 '양반'은 조선시대 사대부를 이르는 말이었다고 했으므로, 신분의 구분이 있었던 시대의 흔적을 볼 수 있다.



5일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문법 핵심 정리 &
나만의 오답 노트



PLUS

초고난도
20문제 도전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

PART 1

5일간의
문법 기본기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DAY 01 - 05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음절은 단독으로 발음되는 최소의 소리 단위로, 현대 국어에서 음절의 구성 방식은 ‘중성’, ‘초성 + 중성’, ‘중성 + 종성’, ‘초성 + 중성 + 종성’의 네 가지가 있다. 하나의 음절은 중성에서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ㅝ, ㅞ, ㅟ, ㅠ, ㅡ, ㅢ’ 중 1개 또는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한 이중 모음 1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또한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중성과 달리 초성과 종성에는 자음이 각각 0개 혹은 1개 나타날 수 있다. 모음은 단독으로 발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음은 단독으로 발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음만으로 하나의 음절을 이루거나, 모음에 자음이 붙어 음절을 이루게 된다.

다음으로 국어의 음절 구성 방식과 관련된 몇 가지 제약을 살펴보자. 첫째, ㉠자음 ‘ㅇ’은 초성 자리에 올 수 없고 중성에만 올 수 있다. ‘중성’이나 ‘중성 + 종성’으로 구성된 음절의 경우 표기상으로는 초성 자리에 ‘ㅇ’이 나타나지만 이는 형식적으로 쓰인 것일 뿐, 자음 ‘ㅇ’이라고 할 수 없다. 가령 ‘아이’에서 초성 자리에 쓰인 ‘ㅇ’은 발음되지 않고, 모음 ‘ㅏ’와 ‘ㅣ’만 각각 단독으로 발음된다. 둘째, 음절의 종성 자리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자음만 올 수 있다. 즉, ㉡종성에서 비음과 유음을 제외한 다른 자음들은 모두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잎, 낮, 밖’은 각각 [입], [남], [박]으로 발음된다. 셋째, 경구개음 ‘ㅅ, ㅆ, ㅈ’ 뒤에는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ㅠ’가 올 수 없다. 따라서 ‘자, 저, 조, 주’는 각각 [자, 저, 조, 주]로 발음된다. 한편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음절 수의 변화가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는 모음이 탈락하거나 축약하면서 음절의 수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된다.

1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밝혀[발켜]’에서 ‘발’과 ‘켜’는 각각 하나의 음절에 해당한다.
- ② ‘영[영]’은 이중 모음에 자음 1개가 붙은 ‘중성 + 종성’의 음절 구성 방식에 해당한다.
- ③ ‘가져[가저]’에서 두 음절은 모두 초성에 자음 1개와 중성에 단모음 1개로 이루어져 있다.
- ④ ‘건너- + -어서’에서 한 음절이 줄어 ‘건너서[건너서]’가 된 것은 모음이 탈락한 것과 관련된다.
- ⑤ ‘사이’에서 한 음절이 줄어 ‘새[새]’가 된 것은 두 단모음이 하나의 이중 모음으로 축약된 것과 관련된다.

12. ㉠과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보기>와 관련지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가) 최소 대립쌍이란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한다. 그런데 자음 ‘ㅇ’과는 달리 ‘ㅎ’은 음절의 초성에만 올 수 있고, 음절의 종성에는 올 수 없다.
(나) 음절의 종성에는 하나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으므로, 겹받침의 경우에는 자음중 하나가 탈락한다.

- ① ‘영[영]’은 ㉠에 해당하는 예로, (가)에 따라 ‘형[형]’과 최소 대립쌍을 이룬다.
- ② ‘종이[종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가)에 따라 ‘종아[조:아]’와 달리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발음된다.
- ③ ‘닿는 → [닿는]’은 ㉡에 해당하는 예로,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옳지 → [올치]’는 ㉡에 해당하는 예로,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⑤ ‘없다 → [업:따]’는 ㉡에 해당하는 예로,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정답풀이 12 ③

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관한 설명이고, (나)는 받침에 겹받침이 올 때 하나의 자음만 남고 다른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에 관한 설명이다. '닭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닥는'으로 바뀐 뒤 다시 비음화가 적용되어 [당는]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닭는 → [당는]'은 ㉔에는 해당하지만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 쌍자음 'ㄱ, ㅅ, ㄷ, ㅌ, ㅈ'은 각각 음운의 개수가 개개씩 따라서 'ㄱ'이 'ㄱ'으로 바뀌는 것은 탈락이 아닌 교체에 해당하며 꼭 기억하자!

오답풀이

- ① '영[영]'은 ㉔에 해당하는 예로, 초성의 'ㅇ'은 자음 'ㅇ'이 아닌 형식적으로 쓰인 것이므로, '영'은 종성과 초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에 해당한다. 그런데 (가)에서 'ㅎ'은 음절의 초성에만 올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형[형]'은 초성, 종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영]'과 '형[형]'은 음절 구성 방식이 달라 최소 대립쌍을 이룰 수 없다.
- ② ㉔에서 자음 'ㅇ'은 초성 자리에 올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종이[종이]'는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발음될 수 없다. (가)에서 'ㅎ'은 음절의 초성에만 올 수 있고, 음절의 종성에는 올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종아[조아]'에서 종성의 'ㅎ'은 탈락한다. 따라서 '종이[종이]'와 '종아[조아]'는 모두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발음되지 않는다.
- ④ 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관한 설명이고, (나)는 받침에 겹받침이 올 때 하나의 자음만 남고 다른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에 관한 설명이다. '울지 → [올치]'는 겹받침 중 뒤의 자음인 'ㅎ'과 뒤 음절 초성의 'ㄷ'이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어 [올치]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㉔과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 ⑤ 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관한 설명이고, (나)는 받침에 겹받침이 올 때 하나의 자음만 남고 다른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에 관한 설명이다. '없다 → [업따]'는 (나)가 적용되어 '업따'가 된 뒤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업따]로 발음된다. 따라서 ㉔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없다.

출제의 핵! 개념어를 답자!

- **최소 대립쌍**: 단 하나의 음운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단어가 되는 단어쌍
예) 물 : 불, 구슬 : 구실, 발 : 밤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예) 밖[박], 부엌[부억], 뒷[닥], 앞[압]
-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겹받침)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예) 낯[낙], 안는[안는], 여덟[어덜], 늑지[낙지]
- **된소리되기**: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예) 국밥[국빻], 꽃병[꽃뽕], 앉고[안꼬], 갈등[갈똥]
- **'ㅎ' 탈락**: 'ㅎ'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는 현상
예) 낳은[나은], 놓아[노아], 닳아[다라], 싫어도[시러도]
- **거센소리되기**: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예) 놓고[노꼬], 만형[마텝], 넓히다[널피다], 좋지[조치]

정답풀이 13 ⑤

'미워'는 어간 '밉-'에 어미 '-어'가 결합하여 불규칙 활용한 형태로, 'ㅂ' 불규칙 활용의 예에 해당한다. 'ㅂ' 불규칙 활용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ㅂ'이 반모음 'ㅍ / ㅍ[w]'로 바뀌는 것으로, 어미의 형태는 바뀌지 않고 어간의 기본 형태만 변화한다.

☞ '미워'는 'ㅂ'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의 활용형이므로 어간의 형태만 변화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ㅂ'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예로는 '도와(돕- + -아), 고와(곱- + -아), 더워(덥- + -어)' 등이 있어!

오답풀이

- ① '먹었니'는 어간 '먹-'에 자음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더라도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규칙 활용의 예에 해당한다.
- ② '이르러서야'는 '르'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모음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러' 불규칙 활용의 예에 해당한다.
- ③ '담가'는 'ㄷ'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끝 모음 'ㄷ'이 탈락하는 규칙 활용의 예에 해당한다. 모음 어미 '-아/-어' 앞에서 어간 끝 모음 'ㄷ'은 필수적으로 탈락하므로, 'ㄷ' 탈락은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④ '하아서'는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서'가 결합할 때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의 모습도 변하는 'ㅎ' 불규칙 활용의 예에 해당한다.

출제의 핵! 개념어를 답자!

- **'ㄷ' 탈락 (규칙 활용)**: 'ㄷ'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ㄷ'이 탈락함
예) 담그- + -아 → 담가, 크- + -어 → 커
- **'러' 불규칙 활용**: '르'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어미 '-어'가 '-러'로 바뀜
예) 푸르- + -어 → 푸르러, 이르- + -어 → 이르러
- **'ㅎ' 불규칙 활용**: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가 오면 'ㅎ'이 탈락하고 어미도 변함
예) 하얏- + -아서 → 하아서
- **'ㅂ' 불규칙 활용**: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끝 'ㅂ'이 반모음 'ㅍ / ㅍ[w]'로 바뀜
예) 돕- + -아 → 도와, 곱- + -아 → 고와

문항	개념 확인	알면 Check! ✓	나의 책 Check! page	선지나 <보기>를 활용하여 문법을 다지자! <small>☑ 선지나 <보기>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여, 내가 몰랐거나 정확히 알고 넘어가지 않을 개념을 p.7의 예시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세요.</small>
11	음절 음절 구성 방식 동일 모음 탈락 축약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최소 대립쌍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ㄹ' 탈락 규칙 활용 'ㄹ' 불규칙 활용 'ㅎ' 불규칙 활용 'ㅂ' 불규칙 활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 '-았었-/-었었-' '-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 연철 표기(이어적기) 체언의 형태 변화 모음 조화 중세 국어의 파생 접미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일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문법 핵심 정리 &
나만의 오답 노트



PLUS

초고난도
20문제 도전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

PART 2

15일간의
함정 문제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DAY 06 - 20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어의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된다. 이때 파열음과 파찰음은 다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뉜다. 아래는 국어의 자음 일부를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한 표이다.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파열음	ㅂ	ㄷ		ㄱ
파찰음			ㅈ	
비음	ㅁ	ㄴ		ㅇ

한편 어떤 음운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동일한 음운으로 바뀌거나, 조음 위치 또는 조음 방법이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고 한다. 조음 방법과 관련된 동화 현상 중에는 '비음 동화'가 있다. 가령, '국민' → [궁민]에서 파열음인 'ㄱ'은 비음인 'ㅁ'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뀐다. 또한 비음 동화는 '옴는' → [음는]과 같이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을 겪은 후에 일어나기도 한다.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는 동화 현상 중에는 구개음화가 있다. 구개음화는 앞 형태소의 받침 'ㄷ, ㅌ(ㅈ)'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ㅈ, ㅊ'으로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한다. 모음 'ㅣ'의 조음 위치는 경구개음과 가까운데, 구개음화는 치조음인 'ㄷ, ㅌ'이 모음 'ㅣ'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어 경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것이다. 구개음화는 조음 위치의 변동과 함께 조음 방법도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 바뀐다. 가령, '밭이다'는 명사 '밭'의 받침 'ㅌ'이 조사 '이다'의 모음 'ㅣ' 앞에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어 '[바치다]'로 발음된다.

구개음화는 근대 국어 시기인 17~18세기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는데, 이때에는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처럼 두 형태소 사이에서 나타나기도 했지만, ㉡한 형태소의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가령, '떨어지다'를 의미하는 중세 국어의 '디다(落)'는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를 겪어 '지다'로 바뀌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잡- + -는 → [잡는]
- ㉡ 달- + -니 → [단니]
- ㉢ 속- + -는 → [송는]
- ㉣ 값+ 만 → [감만]
- ㉤ 곧- + -이 → [구지]

- ① ㉠: '앞 + 만' → [암만]에서처럼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조음 방법만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 '꽃 + 눈' → [꼇눈]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인접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 '깎- + -는' → [깡는]에서처럼 비음의 영향으로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 '흙 + 냄새' → [흥냄새]에서처럼 자음군 중 하나가 탈락하고 남은 자음의 조음 방법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 '날날 + -이' → [난:나치]에서처럼 자음이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12. 윗글의 ㉠, ㉡의 방식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훌이불
 ㉡: 쓴허디다 > 쓴혀지다
- ② ㉠: 해돌이
 ㉡: 견디다 > 견디다
- ③ ㉠: 꽃히다
 ㉡: 윙기디 > 윙기지
- ④ ㉠: 미달이
 ㉡: 티다(打) > 치다
- ⑤ ㉠: 헛별이
 ㉡: 마디 > 마디

정답풀이 14 ⑤

국어의 주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높이는 표현으로, 주로 선어말 어미 '-사-'를 통해 실현된다. ㉠에서 '다치신'은 다리를 다친 주체가 '할머니'이므로 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사-'를 활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또한 '흘리셨다'에서는 서술어 '흘리다'의 주체가 되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사-'를 활용하여 주체 높임을 표현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다치신'이 높이고 있는 대상은 목적어니까 객체 높임법이 쓰인 것이 아니냐고? 문장을 잘 보자. '다리를 다치신'은 인칭문장으로, 원래 문장은 '할머니가 다리를 다치셨다.'겠지? 이 문장이 더 큰 문장에 절로 안기면서 주어진 '할머니'는 꾸밈을 받는 대상과 동일하게 생각된다. 거기다 그래서 '다치신'의 '-사-'는 주체를 높이는 것이지! 문장의 구조도 잘 확인하자!

오답풀이

- ① 국어의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높이는 표현으로, 주로 선어말 어미 '-사-'를 통해 실현된다. ㉠에서 '계시던'과 '나오셨다'는 모두 서술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런데 '계시다'는 '계다'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어말 어미 '-사-'를 따로 분석할 수 없는 특수 어휘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시던'이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여 주체 높임을 표현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나오셨다'는 '나오다'의 어간 '나오-'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사-'가 결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다.
- ② 국어의 상대 높임법은 듣는 이를 높이는 표현으로, 주로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에서 '여쭙어'와 '모시겠습니다'에는 특수 어휘 '여쭙다'와 '모시다'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서술의 객체를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법이 사용된 것이므로 상대 높임을 표현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상대 높임은 '모시겠습니다'에서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표현되고 있다.
- ③ 국어의 객체 높임법은 서술의 객체인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으로, 주로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나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에서 '선생님께서'와 '아버지께'는 모두 조사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를 활용하여 주체 높임을 표현하고 있고, '아버지께'는 높임의 부사격 조사 '께'를 활용하여 객체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와 '아버지께'가 조사를 활용하여 객체 높임을 표현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국어의 상대 높임법은 듣는 이를 높이는 표현으로, 주로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에서 '피곤하신지'와 '주무신다'는 문장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표현으로, '피곤하신지'에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사-'를 통해 주체를 높이고 있고, '주무신다'에서는 '주무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활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피곤하신지'와 '주무신다'를 활용하여 상대 높임을 표현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출제의 핵! 개념어를 답자!

- **주체 높임**: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 방식으로, 선어말 어미 '-(으)사-', 주격 조사 '께서', 접사 '-님', 특수 어휘 '계시다, 주무시다' 등에 의해 실현됨
 ☞ 요즘 어머니께서 서예를 배우신다.
- **객체 높임**: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 방식으로, 부사격 조사 '께', 특수 어휘 '뵙다, 드리다, 여쭙다, 모시다' 등에 의해 실현됨
 ☞ 언니가 할머니를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다.
- **상대 높임**: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 방식으로, 종결 어미에 의해서 실현됨

정답풀이 15 ③

현대 국어에서는 초성에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다. '꽤이니'에서 'ㄱ'은 'ㄱ'의 된소리이므로 두 개의 자음이 아니라 하나의 자음이다. 반면 '꽤니'에서는 초성에 자음군 'ㅂ'이 쓰이고 있으므로 중세 국어에서는 초성에 세 개의 자음이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현대 국어에서 단어의 첫머리에는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어 쌍자음은 하나의 자음이기 때문에 두 개의 자음이 나란히 쓰이는 겹자음과 그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돼! 국어에서는 음절 끝에서도 하나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어! 참고로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고,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가 있어 꼭 기억해 두자!

오답풀이

- ①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이/가'로,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이',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가'가 결합한다. 이와 달리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이/ㅣ/∅'의 세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앞 체언이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이', 앞 체언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난 경우 'ㅣ',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끝난 경우에는 '∅'(영형태)의 주격 조사가 결합하였다. '雙鵬(쌍조)' 뒤에 결합한 주격 조사 'ㅣ'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 ② 형태를 밝혀 적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연철의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사래' 역시 '살 + 애'를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것이며, 현대 국어는 '살 + 애'를 각각의 형태를 밝혀 적어 '살애'로 표기한다.
- ④ 현대 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을/를'로,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을',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를'이 결합한다. 이와 달리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을/을, 를/를'의 형태가 존재하여 현대 국어와 달리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지켜졌다. 현대 국어에서는 '영재'와 같이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중세 국어의 '英才(영재)'에서는 양성 모음 'ㅣ' 뒤에서 양성 모음의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하여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다.
- ⑤ '후사부니'에서는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자음 'ㅅ, ㅆ'과 모음 'ㅣ'가 사용되고 있다.

출제의 핵! 개념어를 답자!

- **주격 조사**: 중세 국어에서는 '이/ㅣ/∅'가 쓰였으며,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주격 조사 '가'는 17세기 근대 국어 시기 이후에 나타남
- **목적격 조사**: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자음과 모음 뒤에서 쓰이는 형태가 달랐으나, 현대 국어와는 달리 모음 조화를 고려하여 '을/을, 를/를'이 선택적으로 쓰임
 ☞ 현대 국어에서 앞 체언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 '를' 대신 'ㄹ'이 체언의 받침으로 합쳐져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중세 국어에서도 선행 체언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 'ㄹ'이 체언의 받침으로 합쳐져서 쓰이기도 했어!
- **어두 자음군**: 단어의 첫머리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나란히 쓰이는 것으로, '시, 시, ㅂ, ㅅ' 등이 있음 ☞ 때 때, 뽕, 뽕, 뽕 뜻
- **ㅅ의 소실**: 16세기부터 약화되기 시작하여 17세기 이후 근대 국어 시기에 소실됨 ☞ 무술 > 무을 > 마을
- **ㅆ의 소실**: 주로 고유어 표기에 쓰인 'ㅆ'은 15세기 중엽부터 소실되기 시작하여 반모음 'ㅅ' / 'ㅆ'로 변함 ☞ 도박 > 도와, 구벽 > 굽어
- **ㅣ의 소실**: 1단계 소실: 16세기, 2음절 이하에서 'ㅣ' → 'ㅡ'
 2단계 소실: 18세기, 1음절에서 'ㅣ' → 'ㅏ'
 ☞ 구르치다 > 구르치다 > 가르치다



5일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문법 핵심 정리 &
나만의 오답 노트



PLUS

초고난도
20문제 도전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

PART 3

5일간의
문법 핵심 정리 &
나만의 오답 노트
DAY 21 - 25

1 자음과 모음

1. 자음(19개): 소리 낼 때, 목 안 또는 입 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양순음 (두 입술)	치조음 (윗잇몸-혀끝)	경구개음 (센입천장-혓바닥)	연구개음 (여린입천장-혀뒤)	후두음 (목청)
무성음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평음)	ㅂ	ㄷ		ㄱ	
		된소리(경음)	ㅃ	ㄸ		ㄲ	
		거센소리(격음)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평음)			ㅈ		
		된소리(경음)			ㅊ		
		거센소리(격음)			ㅉ		
마찰음	예사소리(평음)		ㅅ			ㅎ	
	된소리(경음)		ㅆ				
유성음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 파열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
- * 파찰음: 일단 파열시켰다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 * 마찰음: 입 안의 공간을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 * 비음: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 *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 보내면서 내는 소리

2. 모음(21개): 소리 낼 때,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

① 단모음(10개): 소리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

혀의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 모양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혀의 높이					
고모음		ㅣ	ㅍ	ㅡ	ㅜ
중모음		ㅔ	ㅍ	ㅓ	ㅛ
저모음		ㅙ		ㅓ	

- * 전설 모음: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놓이는 모음
- * 후설 모음: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놓이는 모음
- * 고모음: 혀의 높이가 높음
- * 중모음: 혀의 높이가 중간
- * 저모음: 혀의 높이가 낮음
- * 평순 모음: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평평하게 하고 발음
- * 원순 모음: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리고 발음

② 이중 모음(11개): 소리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모음

'ㅣ'계 이중 모음	ㅑ, ㅕ, ㅛ, ㅜ, ㅠ, ㅡ, ㅞ
'ㅓ/ㅗ'계 이중 모음	ㅓ, ㅗ, ㅛ, ㅜ
'ㄴ'은 앞의 'ㅡ'가 반모음인지, 뒤의 'ㅣ'가 반모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음	ㄴ

1. 음운과 음운의 변동 - 나만의 오답 노트 정리

P.020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1회 11번	○	△	X	P.077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5회 13번	○	△	X
P.020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1회 12번	○	△	X	P.083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6회 13번	○	△	X
P.027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2회 13번	○	△	X	P.096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8회 11번	○	△	X
P.032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3회 11번	○	△	X	P.097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8회 12번	○	△	X
P.039	기본기 탄탄 모의고사 4회 13번	○	△	X	P.105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9회 13번	○	△	X
P.052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회 11번	○	△	X	P.121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1회 13번	○	△	X
P.052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회 12번	○	△	X	P.129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2회 13번	○	△	X
P.059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2회 13번	○	△	X	P.137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3회 13번	○	△	X
P.065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3회 13번	○	△	X	P.144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4회 11번	○	△	X
P.071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4회 13번	○	△	X	P.150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15회 11번	○	△	X

○: 개념도 명확히 알고, 정답도 맞힌 경우 △: 개념은 명확하게 모르지만, 정답은 맞힌 경우 X: 개념도 명확하게 모르고, 정답도 틀린 경우

반드시 다시 보아야 할 문제를 체크하고, 아래의 예를 참고하여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예 DAY 07 문법백제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2회 13번

13. <보기>의 ㉠과 ㉡이 일어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때 한 단어에 동일한 유형의 음운 변동이 한 번 또는 여러 번 일어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각기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걸모습'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은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나지만, ㉡'물약'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은 각기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난다.

- | | |
|----------|----------|
| ㉠ | ㉡ |
| ① 입다[입따] | 흠이불[훈니불] |
| ② 짝눈[깁눈] | 불여우[불려우] |
| ③ 앞다[압따] | 값도[갑포] |
| ④ 물엿[물련] | 영업용[영업똥] |
| ⑤ 솟눈[손눈] | 땀눈[달린] |

☆ 음운 변동의 유형

-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 탈락: 자음군 단순화, 'ㄹ' 탈락, 'ㅎ' 탈락, '-' 탈락, 'ㅅ, ㅆ' 탈락
- 첨가: 'ㄴ' 첨가, 사잇소리 현상
- 축약: 거센소리 되기

잊지 말고 기억하기!!!

- 물약 → 물낙 ('ㄴ' 첨가) → 물락(유음화)

국어의 음운 변동에 'ㄹ' 첨가는 없음!!



5일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문법 핵심 정리 &
나만의 오답 노트



PLUS

초고난도
20문제 도전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

PLUS

초고난도 20문제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 DAY 26

PLUS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PART 1, 2의 모의고사를 풀고, '출제의 핵! 개념어를 담재'와 '나만의 문법 개념 PLUS'를 정리한 후, PART 3에서 틀린 문제 위주로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면, 초고난도 20문제로 이루어진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취약한 부분을 체크하고 약점 부분을 심도 있게 공부합니다.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는 해설의 각 문제마다 제시된 'CHECK'를 확인하여 해당 페이지로 돌아가 복습하면 됩니다. 복습을 할 때에는 PART 1, 2에서 틀린 문제까지 다시 한 번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해서 문제 풀이를 할 때에는 정답을 찾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나 <보기>, 선지에 사용된 문법 개념이나 이론들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공부해 보세요.



1.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기>

㉠ 색연필[생년필] ㉡ 활자[활자] ㉢ 꿩[꿩]

- ① ㉠, ㉡에서는 음운 변동이 각각 세 번씩 일어났군.
- ② ㉠에서 첨가된 음운과 ㉡에서 탈락된 음운은 동일하군.
- ③ ㉠과 달리 ㉢에서 음운 개수의 변화가 생기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④ ㉠은 'ㅇ'으로 인해, ㉢은 'ㄹ'로 인해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⑤ ㉠, ㉢에서는 모두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2. <보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몇 ㉠[마디[마디] 건네보았다.
- 푸르른 ㉡[발이[바치] 펼쳐져 있다.
- ㉢[굳이[구지] 당신들에게 부탁하지 않겠소.
- 새로운 영화가 ㉣[굳이어[고디어] 개봉한다.
- 문이 ㉤[달힐[다칠] 때는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한다.

- ①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과 달리, '말이[마지]'에서는 형태소간의 결합 과정에서 표기된 '디' 'ㅈ'으로 발음된다.
- ② ㉡은 체언 받침 'ㄹ' 뒤에 'ㅣ'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였지만, '똑같이[똑까지]'는 어간 받침 'ㄹ' 뒤에 'ㅣ'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였다.
- ③ ㉢과 마찬가지로 '안개가 걷히다'의 '걷히다[거치다]'에서도 품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조음 위치가 동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서술격 조사가 활용한 형태로 결합한 ㉣과 달리, 서술격 조사가 그대로 결합한 '끝이다[끄치다]'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 ⑤ ㉤은 앞 형태소의 받침이 그대로 접미사 '-히'와 결합하여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앉히다[안치다]'는 먼저 음운이 교체된 후 접미사 '-히'와 결합하여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오늘은 '표준 발음법' 자료에 있는 다양한 예시들을 살펴 보면서 그동안 배운 음운 변동에 대해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예시들을 보면서 분류한 이유를 음운 변동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해 볼까요?

(가) 꺾는[깁는], 젖어미[저더미]
 (나) 값어치[가버치], 닭 앞에[다가페]
 (다) 만형[마형], 막히다[마키다]
 (라) 늑막염[능망념], 들일[들릴]
 (마) 앉고[안꼬], 젊대[점:따]

학생:

- ① (가)는 음절 말음이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었습니다.
- ② (나)는 음절 말의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적용되었습니다.
- ③ (다)는 파열음의 예사소리가 'ㅎ'과 만나 음운이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었습니다.
- ④ (라)는 첨가된 'ㄴ'의 영향으로 다른 음운이 동화되는 비음화나 유음화가 적용되었습니다.
- ⑤ (마)는 어간 받침에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고, 뒤에 오는 어미의 초성에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 해설

1	2	3	4	5
⑤	①	④	⑤	④
6	7	8	9	10
④	④	④	③	⑤
11	12	13	14	15
③	⑤	④	⑤	③
16	17	18	19	20
④	③	③	②	③

진단하기 마지막 점검 모의고사 맞힌 개수로 진단해 보기

• 18~20개: 꾸준히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틀린 문제 위주로 정리하세요. 문제를 풀 때 시간 관리에 신경 쓰면서 정확하게 문제 푸는 방법을 익히면 됩니다.

• 12~17개

(1) **특정 세부 영역 위주로 틀린 경우:** 약점이 있는 문법 세부 영역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에는 해당 영역에 대한 체계를 잡고 다시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운과 음운의 변동 문제 위주로 틀렸다면 공부는 했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학습한 내용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론서와 문제를 함께 펼쳐 놓고, 문제 풀이 후에 반드시 이론서에서 해당하는 개념을 찾아 노트에 다시 정리해 두세요. 이때에는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맞힌 문제까지 지문, <보기>, 선지에 쓰인 개념들을 모두 찾아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골고루 틀린 경우:** 특정 영역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학습한 내용이 문제 풀이에 적용이 안 되거나, 문제를 풀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틀린 문제를 분석할 때에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것인지, 실수로 잘못 본 경우인지 체크합니다. 개념을 몰랐다면 개념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반복 학습을 해야 합니다. 실수로 틀린 경우에는 실수를 교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문법은 무엇보다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문제 풀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접미사, 어미, 조사' 등의 용어를 정확히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발문이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인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지도 정확히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 11개 이하: 문법의 기본 개념이나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문법은 체계적인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음군 단순화를 공부한다면, 음운의 변동의 유형 중 탈락에 해당하고,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같은 탈락이지만 'ㅎ' 탈락과는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며 공부합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할 때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해당 예시를 가지고 있는 이론서나 자신의 문법 노트의 자음군 단순화 파트에 추가하면서 공부를 하면 체계적으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과 오답 모두 꼼꼼하게 분석하자!

정답풀이 1 ⑤

CHECK 이 문제를 틀렸다면 PART 3-1. 음운과 음운의 변동 p.160으로 가서 복습하기!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것은 동화의 일종으로, 비음화와 유음화는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동화이다. ㉠(색연필[생년필])에서는 첨가된 'ㄴ'으로 인해 바로 앞의 자음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고, ㉡(끓는[끓른])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앞말의 받침 'ㅎ'이 탈락하고 남은 'ㄹ'로 인해 바로 이어지는 'ㄴ'이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 ㉡에서는 모두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오답풀이

- ① ㉠은 '색연필 → 색년필(ㄴ 첨가) → [생년필(비음화)]과 같이 두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한편 ㉡은 '할지 → 할지(음절의 끝소리 규칙) → 할찌(된소리되기) → [할찌(자음군 단순화)]와 같이 세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에서 첨가된 음운은 'ㄴ'이고, ㉡에서 탈락한 음운은 'ㄷ'이므로 ㉠에서 첨가된 음운과 ㉡에서 탈락한 음운은 동일하지 않다.
- ③ ㉡은 '할지(6개) → [할찌(5개)]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고, ㉢도 '끓는(7개) → [끓른(6개)]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즉, ㉡과 ㉢ 모두 자음군 단순화(탈락)로 인해 음운 개수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 ④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것은 동화의 일종으로, 비음화와 유음화는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동화이다. ㉢은 '끓는 → 끓는(자음군 단순화) → [끓른(유음화)]과 같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앞말의 받침 'ㅎ'이 탈락하고 남은 'ㄹ'로 인해 바로 이어지는 'ㄴ'이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났으므로, 'ㄹ'로 인해 동화가 일어난 것이 맞다. 그러나 ㉠은 '색연필 → 색년필(ㄴ 첨가) → [생년필(비음화)]과 같이 첨가된 'ㄴ'으로 인해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므로, 'ㅇ'으로 인해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다.

출제의 핵! 개념어를 답자!

- **동화:** 말소리가 서로 이어질 때,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영향을 받아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소리의 변화
- **ㄴ 첨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현상
예) 맨입 → [맨닙], 색연필 → [생년필]
- **비음화:**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비음 'ㅇ, ㄹ'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현상
예) 곡물[공물], 걷는다[건는다], 밥물[밭물]
- **유음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예) 칼날[칼랄], 권력[컬력], 설날[설랄]
-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서 겹받침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예) 값 → [갑], 흙 → [흑]